

“교육으로 옐로우시티 미래 100년 준비”

‘과학영농 선도실천’ 본격화

새해 첫 교육발전협의회 개최... 현안 18건 처리

교육 지원 확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집중”

장성군이 균형 상향실에서 새해 첫 교육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군의 교육정책과 교육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조정하는 자문기구로, 의장인 유두석 장성군수와 군의회 의원, 장성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육 관련 실무자, 학부모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9월, 전남 지역 최초로 출범했다.

학교에 필요한 정책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은 실무추진단을 통해 청취한다. 실무추진단은 학부모 위원과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회장으로 조직됐다. 학부모 간 SNS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군은 2022년을 교육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밖 환경 개선,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장성군 외국어체험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11건의 제안을 건의했다. 향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건의된 제안 처리결과를 오는 3월 회의에서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제안된 소프트웨어 교육, 학교숲 조성, 마을 교육

공동체 구성, 학교 환경 개선 등 총 18건은 즉시 검토를 마쳤으며, 교육 현장의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 관계자와 학부모, 학교장 등이 함께 머리를 맞

냈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해 5월 장성교육지원청, 장성경찰서, 장성소방서 4개 기관과 교육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인재 육성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장성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장성하이테크고등학교 내 ‘창의융합교

육관’ 건립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교육은 장성의 미래 100년을 좌우한다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이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교육 지원도 점차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성군은 최근 균형 상향실에서 새해 첫 교육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장성군 제공

화순, 경영개선 시범사업... 내달 3일까지 신청

우량 농업인 육성... 신기술·자동화 시설 지원

화순군이 과학영농 선도실천과 농업경영력 향상을 위한 2022년 경영개선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도 입하기 어려운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영 능력을 키우고, 우량 농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농축산물 비용절감 경영모델 개발, 우수 강소농 경영개선 지원, 현장 실습교육장 기반조성,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사업은 보조지원 70%, 자부담 30%로 추진된다.

농축산물 비용절감 경영모델 개발 시범

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생산비 절감 신기술, 신제품, 생력 기계화, 자동화 시설 등을 지원한다.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6,500만 원으로 지역특화작목 품목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유통복합산업화 장비와 생산규격화, 조직체 역량강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2월 3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화순군 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다.

신청은 사업별 신청 요건을 갖춰 농업기술센터나 해당 지역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면 된다. /화순=이종백 기자

‘예쁜얼굴·예쁜마음’ 미용봉사 눈길

장흥 선점자 원장 재능기부

장흥군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년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예쁜얼굴·예쁜마음, 찾아가는 이·미용봉사’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매일 외출이 힘든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머리를 다듬어 드리는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이다.

매달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주는 인기 사업으로, 올해는 1월 20일을 시작으로 매달 1회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어르신들이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기분전환도 하시고 예뻐졌다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작은 시간이지만, 행복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안병진 장평면장은 “대가 없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꾸준한 봉사를 해주시는 선점자 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올해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담양,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내달 10일까지 80명 모집

담양군이 24일부터 2월 10일까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종선발된 35명은 신제품 개발에서부터 가공·상품화,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등 장농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에서 80명을 모집하며,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추천한다.

신청자격은 청년창업농회 회원 중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영역별 또는 면제자에 해당한다.

이번 청년창업농타운의 교육프로그램은 아이디어발굴,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사업계획작성과 피칭, 제품개발 실습 과정 등 217시간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생은 필수과정과 선택과목을 포함해 7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공모심사에 참가할 수 있다.

공모심사에서 최종 선발된 35명에게는 5천만 원의 지원과 청년창업농타운 멘토단의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리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농업기술원 또는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담당(061-380-343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정일남 기자

나주, 상반기 공공사업 참여자 접수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있다.

나주시는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2차) 참여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 방역지원 등 총 33개 사업에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방역지원, 안내도우미, 안내 센터, 기관 환경정화 및 업무보조, 관공시설 방역 관리 등으로 세부 목록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코로나여파로 인한 실직자, 무급휴직자,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우선 고용한다.

시청, 워크넷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기준은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3월부터 6월 말까지 주 15-40시간 이내로 시급 9160원(간식비 별도)을 지급한다.

시는 앞서 이달 초 ‘지역방역’, ‘지역공동체’ 등 2개 유형별 공공근로자 25명을 선발한 바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공근로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주민들의 생계 여건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공공서비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영광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집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월 9일까지 ‘2022년 영광군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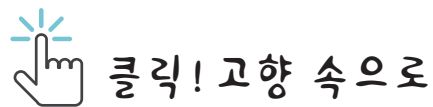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영광군민 중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농촌생활 소개, 살기 좋은 마을 발굴, 귀농·귀촌 성공사례 등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리포터(reporter)를 말한다.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귀농·귀촌인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을 방문 또는 전자메일

(drgxg9140@korea.kr)로 2월 9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시민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라며, “동네작가들이 도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내역 및 신청서는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전화 350-5574)으로 하면 된다. /영광=곽용순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정남진새마을금고, 이웃돕기 성품 기탁

장흥군 정남진새마을금고 용산지점에서 최근 쌀 20kg 50포와 라면 19상자(100만원 상당)를 용산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한용현 이사장은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 명절을 앞둔 어려운 이웃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우리 이웃들이 행복하고 희망찬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호 용산면장은 “꾸준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정남진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리며 물품을 잘 전달해 모두가 행복한 용산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탁 받은 쌀과 라면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용산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영광,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

영광군이 광주시 서구 고층 아파트 붕괴 사고와 유사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김준성 군수가 최근 영광읍 단주리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 공정별 추진 상황을 살피고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 군수는 겨울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낙상, 낙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한 시공과 안전관리도 함께 당부했다.

영광군은 시공 중인 대형건축물 건설 현장 8곳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4일간 일제 점검을 추진 중이다. /영광=곽용순 기자



담양, 설 앞두고 기부 릴레이

설을 앞두고 담양군에 코로나19 등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업과 단체들의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에서 코로나19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작은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떡국떡 50박스를, LG전자담양 대리점에서 백미 10kg 60포를 기부하

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기업과 단체들에 감사드립니다”며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